



미원주민 주일

SERMON STARTER

# 설교자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 주일

# 설교자료

개 교회는 어느 주일이든 미원주민 선교 주일로 지킬 수 있지만, 부활절 후 셋째 주일인 올해 4월 26일에 특별 헌금과 함께 이날을 지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설교 자료는 성서 일과표 4월 26일 주일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24:13-35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설교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이 메시지를 각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공된 예배 순서를 주보에 포함하거나 유인물로 출력하여 교우들이 이 특별한 날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제공된 헌금 전 이야기 및 어린이 자료를 통해 예배의 모든 부분이 한 흐름 안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소망을 향한 길을 함께 걷기

오늘 아침 복음서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첫 부활절에 엠마오로 걸어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선포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메시지를 여인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온몸에 힘이 쭉 빠진 듯이 느꼈고, 슬펐으며, 혼란스럽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길을 걷던 낯선 사람에게 직접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들은 희망했습니다. 소망을 완전히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실망의 순간과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기억합니다. 제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들입니다. 저도 희망했습니다. 다른 결과를 바랐었고, 이해할 수 없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길을 우리 곁에서 걷고 계십니다.

오클라호마주 하츠쇼른의 족토 부족에 의해 지원되는 기숙 학교 존스 아카데미 (Jones Academy)의 어린이들은 어떤 소망과 꿈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이 학교는 29개 미원주민 부족 출신 약 200명의 학생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 중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 미원주민 주일

# 설교자료

많은 아이가 빈곤, 중독, 학대와 같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부모님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절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교인 대다수가 미원주민으로 구성된 인근의 그레이스 인디언 연합감리교회자 존스 아카데미의 학생들과 함께 사역하며 걷기로 했습니다.

축토 부족의 일원으로 그레이스 교회의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는 그웬 패리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가진 가정이라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정을 떠나 있는 동안 그들의 영적인 이모, 삼촌, 할아버지/할머니처럼 그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 아이들이 가진 희망적인 약속을 강조하면서, 패리쉬는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부족의 미래인 동시에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그들에게 세워주고 싶습니다.”

그레이스 인디언 교회는 존스 아카데미 재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들과 신뢰와 충실함에 기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학생들과 함께 소망을 향해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 <http://www.umcsgiving.org/impact-articles/grace-indian-church-embraces-children>)

예수님께서서는 비슷한 방법으로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들을 보살피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새로운 해석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하셨던 것을 상기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함께 길을 걸으며 듣다가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침내 엠마오에서 그들은 빵을 쪄개주시는 이 낯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희망의 비전을 회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희망을 경험하십니까? 나와 함께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 미원주민 주일 설교자료

교회의 벽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어떻게 이 희망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미원주민 주일 헌금을 통해서 희망의 사역에 참여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원주민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빵을 나눌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도록 강권했던 그분의 친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걷는 가운데 서로를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참여, 은사, 봉사,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의 미원주민 사역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레이스 인디언 교회와 존스 아카데미의 학생들 사이의 소망 넘치는 사역과 우리가 연결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걷고 계시며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후, 두 제자는 더는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24:33, 35).

우리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는 비밀에 부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을 떠나면서, 저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깜짝 등장에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의 정의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임재라는 복된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늘 따뜻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린 기쁨.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